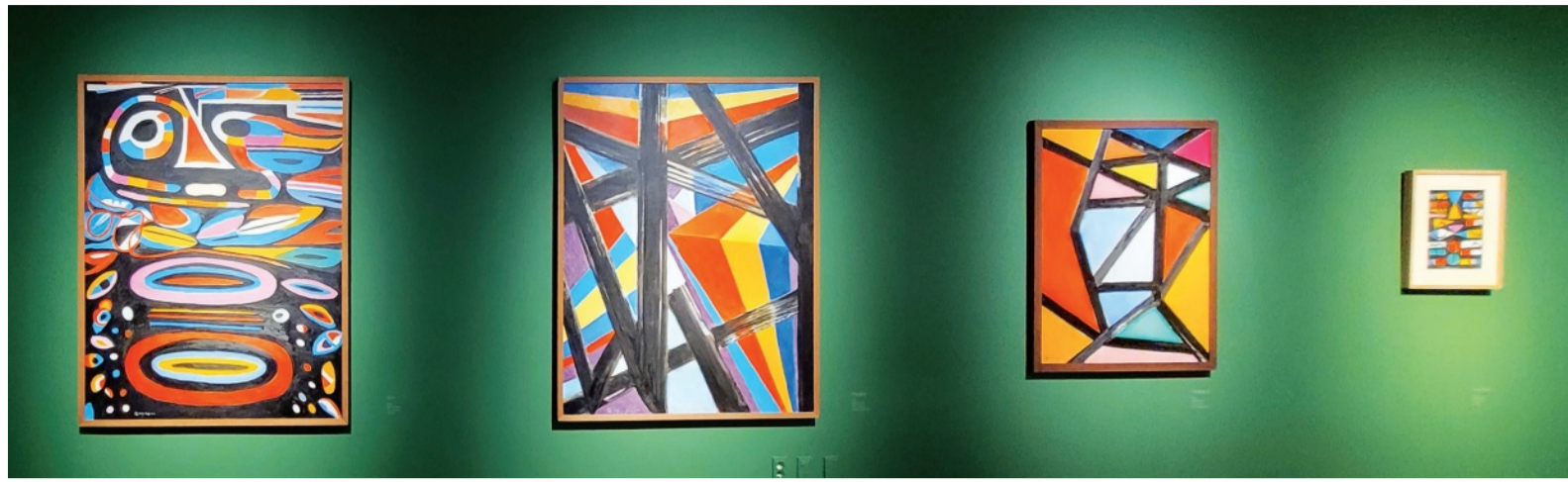


공연장에, 미술관에, 영화관에



'위드 코로나'로 방역 시스템이 전환됨에 따라 문화예술계에서는 대면행사가 열리고, 축제 등도 개최되는 등 활기를 띠 전망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은 '강용운' 전과 연계한 세미나를 대면행사로 치를 예정이다.

관객이 돌아온다

'위드 코로나' 대면행사 전환...시립미술관 강연·세미나 개최 문화재단 프린지·무등울림 등 진행...영화 6천원 할인권 지급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정책이 전환되면서 문화예술계가 더욱 활기를 띠 전망이다. 참여인원을 축소하고, 비대면 행사 등을 진행해온 문화계는 1일부터 새로운 방역시스템이 적용됨에 따라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행사를 늘리고, 연기했던 축제도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일부 강의를 대면 행사로 전환하고 세미나도 개최한다.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펼쳐온 미술관 아카데미는 올해 처음으로 대면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9일(오후 3시 미술관 강당) 열리는 강의에서는 주경란 박사가 '미디어 아트: 뉴 미디어 아트, 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주제로 미술예호 강의를 만날 예정이다.

코로나 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세계 유수의 미술관을 만나기 위해 기획된 토요문화이벤트 '그림 읽어주는 남자의 미술 기행'도 처음 대면 강의를 진행한다. 지금까지 바티칸미술관과 루브르박물관을 소개했던 이창용씨는 마지막 강의(27일 오후 3시)에서 '인상주의의 시작과 끝-오르세 미술관'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기획단계에서부터 코로나 시대에 맞는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준비한 '슬기로운 예술수업'은 기존대로 zoom 강의를 진행하고 강연을 편집, 4주

간 미술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현재 열고 있는 화제의 전시 '강용운-나를 춤추다'(14일까지)전과 연계한 세미나도 진행한다. 오는 11일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호남추상의 핵심 인물로 지난해와 올해 각각 탄생 100년을 맞은 양수아와 강용운의 삶과 예술을 살펴본다.

한편 10월까지 일 480명으로 제한했던 미술관 관람인원은 1일부터 1440명(시간당 180명)으로 확대했다.

광주문화재단은 당초 10월 개최 예정이었다 11월로 연기한 광주프린지페스티벌과 무등울림을 개최한다.

광장형 프린지페스티벌은 오는 12-14일 5-18민주광장, 전일빌딩 옥상, 아시아문화전당 계단 등에서 열린다. 무등울림축제 역시 같은 기간에 무등산 자락 일대에서 개최된다. 실내용 행사는 현장인원을 제한(서석당 20명, 입석당 10명)해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고 야외 너털마당에서 진행되는 개막공연 '전라도 사투리 우리민요 부르기', 폐막공연 '동네방네 마당놀이' 등은 100명 미만이 참여할 수 있다.

그밖에 빛고을시민문화관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공연장도 다음 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해 관객석 밀집도를 조정할 예정

이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영화관들의 움직임도 바빠졌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영화 할인권을 배포하는 등 극장 정상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203만 명에게 6000원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할인권을 지급한다. 할인권은 CGV, 롯데시네마 등 복합상영관뿐 아니라 독립·예술영화관, 작은 영화관, 개별 단관 극장 등 전국 521개 영화상영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극장에서는 성인의 경우 2000원 영화 관람할 수 있으며 광주독립영화관은 '모든 요일 할인 1000원 관람' 이벤트를 진행한다.

CGV, 롯데시네마 등은 집중자와 미집중자 관객을 구분해 다른 방역 조치를 하는 이른바 '백신 패스관'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백신패스관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관객들만 입장 가능인 전용 상영관으로 이곳에서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일행이 함께 앉아 영화를 볼 수 있다. 접종이 완료했다는 증명서를 입장 전 직원에게 확인해주는 절차를 거치면 입장 가능하다. 다만 이미 예매가 시작된 영화가 대다수인 만큼 백신패스관이 운영되기까지는 며칠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패스관 수는 전체 상영관의 30% 수준으로, 관객 반응을 살핀 뒤 차츰 늘려갈 예정이다.

또 영업제한 시간이 없어짐에 따라 극장들은 주말이나 공휴일 등을 중심으로 심야 영화를 편성해 관객에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마음에 목힌 풍경 '오래된 시간'

이관수 개인전, 11일까지 예술공간 집

거리에 하얀 눈발이 날린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 골목길에 세워진 자동차 위로 흩날리는 눈을 맞으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누군가의 집에 밝혀진 붉은 전등은 외롭게 그 길에 발자국을 내는 우리에게 전하는 한 자락 위안일지 모른다. 무채색이 주조를 이루는 서양화가 이관수 작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열은 붉은빛은 작품에 있을 수 없는 인장을 남기며, 깊이 새겨진다.



'오래된 시간'

이관수 작가 다섯번째 개인전이 오는 11일까지 예술공간 집(광주시 동구 제봉로 158번길 11-5)에서 열린다.

'오래된 시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개인전에서는 전시 제목처럼 시간의 흐름을 버려온 오래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전시작은 모두 올해 작업한 것으로 작품 세계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담긴 것들이다.

천불천탑의 설화를 간직한 '운주사'를 다룬 11점은 민중미술 작업들을 통해 삶에 대한, 역사에 대한 애정을 멈추지 않았던 그의 내면을 드러내는 작품들이다. 먼산을 바라보며 서 있는 석불들의 모습이나, 딱딱 탐속에 들어앉은 석불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보성 바다와 그 위에 놓인 배를 그린 작품들에서는 지난했던 삶에 대한 애환이 느껴지며 흩날리는 눈이 등장하는 연작은 쓸쓸하면서도 따뜻함을 전한다.

그의 작품에서는 유희의 특질인 두터운 마티에르가 존재하지만 수묵 느낌이 짙게 풍겨온다. 거칠게 바른 화면 속에서 검정과 회색과 흰색은 서로 얹히고 보듬으면서 슬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스치는 바람', '눈내리는 여름밤' 등을 주제로 개인전을 열어온 이 작가는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광주민중미술협회, 광주 민예총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하늘 작 '스택 앤 스택'

메조 소프라노 강양은 60년 노래 인생

6일 오웬기념각서 공연...손자·손녀 협연, 제자들 특별 출연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들뜬 마음으로 소풍날만을 기다리던 한 소녀가 있었다. 노래 부르기를 마냥 좋아했던 그 소녀는 '전국 어린이 성가 부르기 대회'가 소풍날과 같은 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소풍을 가는 대신 찬송가를 부르기로 결심한다.

그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노래하는 사람으로 자라 지금까지 찬송을 하고 있는 그 소녀는 이제 노년이 됐고, 그녀의 삶을 담은 노래로 우리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다.

'메조 소프라노 강양은 찬양 60년' 공연이 오는 6일 오후 5시 광주시 남구 양림동 오웬기념각에서 열린다.

초등학교 시절, 찬송으로 노래를 시작한 메조 소프라노 강양은(73)씨는 지금껏 찬송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온 것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

이번 무대를 마련했다. 공연에서는 강 씨가 어린 시절 불렀던 찬송가부터 대학생 시절과 교회 찬양대에서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즐겨 불렀던 노래들을 들려주며 강 씨의 손자 지강인 군의 기타 연주와 손녀 지예인 양의 오보에 연주도 함께 만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공연은 강 씨와 손자, 손녀가 협연으로 들려주는 '나는 주의 회원에'로 시작한다. 이어 '나는 주의 군사', '별시와 천대', '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주 예수 대문밖에', '내 맘에 한 노래있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등을 들려준다.

또 호남신학대학교 제자들이 특별출연해 '내가 영으로', '은혜 아니면'을 노래하며 '마음이 가난한 자는', '주의 웃자락',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신 하나님' 등도 들려준다. 공연의 대미는 강 씨가



메조 소프라노 강양은

제자들과 함께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등을 부르며 장식한다.

강 씨는 조선대 음악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조선일보 주최 '신인 음악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1987년 첫 독창회를 남도예술회관에서 가졌으며 이후 광주문화재단 대극장, 5·18기념문화관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등 해외 무대에도 올랐다. 현재는 호남신학대학 명예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문의 010-3134-315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김하늘·부지현·리사 막스 등 9명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첫 국제오픈콜 수상

온라인 전시관 소개

최근 막을 내린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열린 첫 국제오픈콜 수상의 영예는 9명의 디자이너에게 돌아갔다.

국제오픈콜은 김현선 총감독이 올해 디자인비엔날레에서 처음 도입한 국제 공개 공모전으로 국내외 유수의 작품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신진 디자이너를 발굴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공공성과 정체성'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오픈콜에는 25개국에서 코로나, 환경 등 인류 공통의 과제부터 각자의 문화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두고 해결하려는 아이디어들이 모였다.

1차 심사는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획자들이 맡았으며 김현선 총감독을 비롯한 역대 총감독

들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수상작자들은 이번 비엔날레 온라인전시관에서 만날 수 있다.

수상작은 페마스크를 모아 의자로 재탄생시킨 김하늘의 '스택 앤 스택', 폐접이 등을 조명으로 재구성한 부지현의 '루미너스', 전통 가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준 김용남의 '리플렉션', 인도의 전통사상을 의자로 디자인한 니라즈 굽타(인도) '턴 어라운드'를 비롯해 리사 막스(미국)의 '알고리즘 레이스', 엑스 피규라(프랑스)의 '슈퍼포마', 스티븐 장 & 니콜라스 로마노스 소카(중국·그리스)의 '플라스틱-스케이프', 알리슨 장(캐나다)의 '사우스로스엔젤레스 번즈', 크가 우겔로 라크발레드의(남아프리카)의 'Bakgolo Boyang'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40년

국제보청기